

광주 6000억 투자 ‘AX 실증밸리 조성’ 본격 추진

AI 2단계 예타 면제 최종 확정 내년부터 5년간 진행
융복합기업 1000개사 집적화...경제효과 1조5000억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

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 최종 확정됐다.

AI 2단계 사업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2단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작성성 검토를 거쳐 총 6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국가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브 시물



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AX,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 AX 핵심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문제에 인공지능(AI)을 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인 5극3특 체제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알이(RE) 100산단 조성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 AI 전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체감하고 공유하는 ‘모두의 인공지능(AI)’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광주형 모두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하고, 일상 전환을 바꾸는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과제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융복합기업 1000개사의 집적을 목표로 한다. 또 3375개 공공시설을 ‘AX 실증밸리’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에 제공해 실증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지

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실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1단계 사업이 인프라와 인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2단계는 시민이 체감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시기다”며 “대통령의 약속처럼 광주를 최고의 인공지능(AI) 도시로 만들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구 풍암호수 야외무대에서 열린 ‘명품 호수공원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명품공원’ 탈바꿈

시, 비전 선포식...호수백사장·시민 힐링공간 등 조성
대한민국 녹색심장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속도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한다.

24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풍암호수는 지난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 2km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또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풍암호수 등이 있는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와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록도 병원·관사 외 지역 고흥군에 이관해야”

이개호 의원, 보건복지부에 적극적 태도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4일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록도 병원 방문시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소록도는 지난 5월 현재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331명의 환자들과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

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해 가고 있다.

문제는 소록도 병원의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규로 소록도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흥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



점기 재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

존하는 가치가 큰 지역으로 소록도 병원 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구역은 환자 치료·진료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구역은 고흥군에 이관해서 도로·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유지·보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개선, 문화·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 등 지자체의 행정·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서 수목 향연 미리 즐기세요

‘작가의 방’ 개설...1~6관 참여작가·주요 작품 정보 한곳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공식누리집에 ‘작가의 방’을 새롭게 개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가의 방’은 6개 주요 전시관에 참여하는 작가와 주요 작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놓은 온라인 예술 보관소다.

관람객은 1관 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

수목 거장들의 대표작, 대형 기획전 등을 먼저 만나며 현대 수목의 스펙트럼과 깊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관 실내체육관에서는 마리아노, 지민석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관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이응노, 박생광, 서세옥, 송수남, 황창배 5인의 작품이 전통 수목에 혁신을 불어넣으

며, 각기 다른 현대적 해석을 펼친다. 4관 소전미술관은 추사 김정희와 소전 손재형 등 작품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5관 땅골순례문화관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수학 김한기를 비롯해 동서고금을 잇는 7인의 작품이 장트를 넘나드는 융합의 장을 펼친다. 6관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는 공재 윤두서와 겸재 정선의 작품을 통해 해남이 품은 수목 예술의 뿌리와 그 정신적 원류를 새롭게 비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히어로 슈퍼패커와 함께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